

Gyro

힘내자 후쿠시마

(재)후쿠시마현 국제교류협회

※본 정보지의 영어판·중국어판·한국어판·프랑스어판은 당협회HP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재) 후쿠시마현국제교류협회 2011년 6월 30일 발행호

이번 동일본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과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후쿠시마현내에 거주하는 외국 출신 현민과 국제교류 단체의 모습 등을 전해드립니다. 또한, 다음 호부터는 당협회 HP에 일부를 정기적으로 게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후쿠시마는 지금



오제누마에서 환경학습에 열중한 아이들 (2011.6.3 촬영)



대회 준비에 한창인 가라테도장 (2011.6.4 촬영)



신선한 야채를 찾는 고객으로 붐비는 농산물직판장 (2011.6.14 촬영)



후쿠시마 소식

서수연 씨 (한국출신 여성 후쿠시마시)

재해 당시 아이의 졸업식을 마치고 돌아와 집 앞에 자동차를 막 세우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너무 크게 흔들려서 『집이 흔들려』 『신이여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원발 사고도 있어 남편을 홀로 남겨두고 3월 한 달은 2명의 아이와 함께 도쿄에 있는 지인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4 아이들 학교 문제로 4월에 다시 후쿠시마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피난처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며 나에게도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생각되어, 지금은 현내 각지 피난처에서 오리지널 부흥운동가 『3월 11일에서 내일로』 를 부르며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용기를 북돋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제이 파르크 씨 (인도 출신 남성 고리야마출신)

방사능, 불안합니다. 지금은 학교 수업이 시작되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는 아이들 때문에 이곳에 있지만, 원발 사고 직후인 13일은 이곳에서 250km 떨어진 가와사키시(川崎市) 친척네에서 한 동안 생활했습니다. 정부와 도쿄전력은 확률론으로 논쟁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은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이들 학교 문제와 일 문제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살고있는 부모님 문제도 있어 고리야마에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휴식을 위해 아이즈(会津)온천으로 나들이를 다녀오기도 합니다.

劉 延廷 씨 (중국출신 남성 후쿠야마시)

지금 대학교 3학년입니다. 지진 후 친구집과 피난처에서 생활했습니다만, 15일에는 중국정부가 준비한 버스를 타고 니이가타로 이동, 잠시 모국으로 피난했었습니다. 대학수업도 시작되고 해서 5월 10일밤 후쿠시마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가보니 마스크를 한 사람도 생각보다 없고 모두들 즐겁게 웃으며 서클활동을 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불안한 마음으로 후쿠시마로 돌아왔지만, 이것을 보고 「괜찮아, 남은 2년 동안 열심히해서 대학 졸업하자」 고 생각했습니다. 『지지않을테야, 힘내자, 후쿠시마』

이시다 세시라아 씨 (브라질출신 여성 후쿠야마시)

저는 그 때 마침 고향인 브라질에 가 있었습니다. 후쿠시마에 남아있는 남편과는 이를 후에야 연락이 되었습니다. 13일에는 나리타로 돌아왔는데 신칸센은 불통이고 고속버스 티켓도 좀처럼 구하기 힘들어 결국 후쿠시마로 돌아온 것은 28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신나게 놀 수 없는 것, 항상 방사능 문제가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 등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되었던 생활이 불가능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아 생활해 가고자 합니다. 저는 후쿠시마가 너무 좋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예전의 후쿠시마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우세코 갈릴레오 씨 (이시카와마치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이시카와마치에서 영어지도조수로 일한지 3년째가 되는 갈릴레오 씨는 지진 후 T셔츠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보내준 메일을 계기로 차리티T셔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즈와카마쓰관광물산협회의 사용허가를 얻어 『아카베에』 로고를 넣는 등 갈릴레오 씨가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를활용하여 4월



중순부터 판매를 시작해 6월 중순까지 2개월간 현내 뿐만 아니라 전국, 거기다 미국 등 해외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주문수는 약 1,000 장. 그 수익금 전부를 후쿠시마현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갈릴레오 씨는 현지에 가서 지원활동을「할썩 없지만 무언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다.」라고 말합니다.

<http://fukushimatshirt.blogspot.com/>

르완다 교육을 가르치는 모임 (후쿠시마시)

대표를 맡고 있는 칸벤가 마리루이즈 씨는 르완다 내전 때 집을 잃고 가족들도 모두 빨빨이 흩어진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본 모임에서는 3월 25일 당시



피난처였던 후쿠시마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후쿠시마 시내와 니혼마쓰 시내, 다테 시내의 피난처 6 군데에서 마리루이즈 씨 자신의 경험담을 토대로

살아있다는 것의 소중함을 들려주거나 회원인 플룻연주가의 미 콘서트와 함께 르완다 커피나 홍차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7월 18 일에는 차리티 『네팔 대나무피리 콘서트』를 후쿠시마 시내에서 개최합니다.

<http://www.rwanda-npo.org/>

알로하·이니시어티브 (후쿠야마시)

NPO 법인 마우이일본문화협회에서는 피해자 지원으로써 『Opening hearts. Opening homes.』 캐치플레이즈로 「알로하·이니시어티브」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피해지에 있는 사람들을 하와이로 초대하여 2주부터 3개월간 홈스테이를 하면서 홈스테이 가정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Aloha Spirit』에서 몸과 마음의 안정과 부활을 꾀하는 것입니다. 창구역할을 하는 분이 후쿠시마시에 거주하는 하와이 출신의 모리구치 마리안 (森口)씨 입니다. 마리안 씨는 「이 번 모집에 정원이 60명인데 그 3 배인 190 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선정절차 등으로 바쁜 매일을 보내고 있지만 타인을 위해 일한다는 보람이 있습니다.」라고 의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http://alohainitiative.com/>

후쿠시마 다문화 공생 서포터 여러분들

이번 지진 후 『외국어 지진 정보 센터』에서 후쿠시마 다문화 공생 서포터 여러분께서 영어와 중국어 통,번역 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서포터분들도 피해를 입으시고 여러가지 힘든 상황 인데도 흔쾌히 통,번역 활동에 응해주셨습니다. 미증유의 지진 속에서 외국어를 통한 정보 제공은 많은 외국인들에게 큰 마음의 힘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岩間真弓씨
(중국어)



貝沼美千代씨
(영어)



佐久間香織씨
(영어)



大宮美咲씨
(영어)



服务信息

2011년 도호쿠지방 태평양연안 지진으로 인한 피해 상황 속보

福島县政府用日语、英语、中文在网页(链接至本协会网页)上即时公布各种地震关连的受灾信息。内容包括“环境放射能测定结果(暂定值)”、“农产品受害等相关信息”等。县国际交流协会的网页上除上述语种之外,还随时用菲律宾语、韩语、葡萄牙语做部分信息更新。

당협회 업무시간 변경

당협회에서는 7월1일부터 통상적으로 업무를 개시합니다. 또한 『외국어 지진 정보 센터』는 통상 업무 시간에 계속해서 운영하므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 화~토 8시30분~17시15분
(일, 월, 공휴일, 연말연시는 휴무)

발행자

(재) 후쿠시마현국제교류협회

우편번호:960-8103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시 후나바초 2-1 후쿠시마현청 후나바초 분관 2층

☎024-524-1315 FAX 024-521-8308 E-mail info@worldvillage.org URL <http://www.worldvillage.org>